

 **5Rchestra**
(오케스트라)





O₅Rchestra



ORCHEM

O! Quiz 이벤트!

사보 마지막 페이지 O! Quiz를 풀어보세요!

임직원 7명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응모방법 : 김정아 사원 메일(junga9434@orchem.com)로 응모

※ 본 이벤트는 랜덤추첨으로 진행됩니다.

CONTENTS

- 04 O! Highlight
- 06 O! News
- 12 Inside ORChemer
- 23 CA 2기 워크샵
- 24 슬기로운 직장생활
- 26 2024 O!pening day 수상자
- 28 2024 O!pening day 현장 스케치
- 30 산업/기술 동향
- 32 O! Language
- 34 O! Research
- 35 O! Campaign
- 36 O! Culture
- 38 O! Test
- 39 O! Quiz

발행처 (주)오알켄
 발행일 2024년 4월 1일 (통권 제 12호)
 편집/디자인 김정아
 기사단 ORCHEM (본사) 최다정, 김학범
 ORCHEM (중국법인) 莫秋玉 Mo qiu yu
 ORCHEM (베트남법인) Jang
 오알시솔루션 박승영, 김준용
 대표전화 031-488-0600
 홈페이지 www.orche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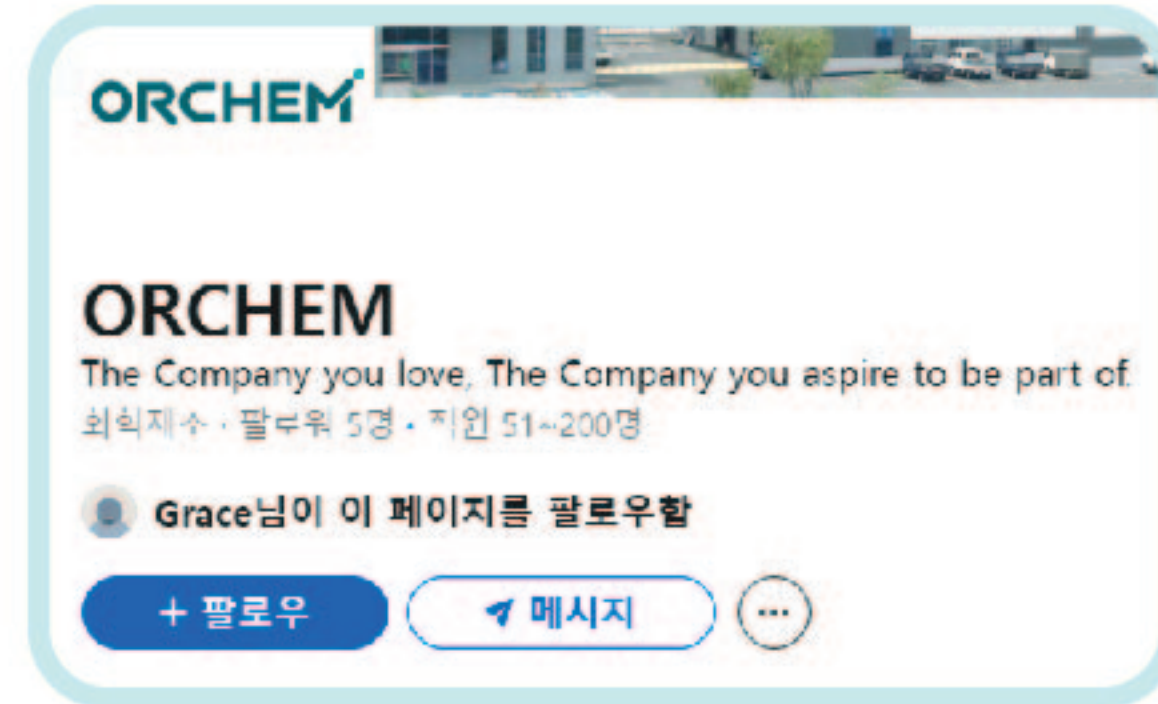
2024년 1분기 ORCHEM 주요 활동 돌아 보기



01월 2024 O!pening Day



02월 설맞이 이벤트 이!한마당



02월 오알켄 링크드인 오픈



03월 심폐소생술 인식 및 실습 교육



02월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견학



02월 리더 독서 토론회



02월 CA 2기 워크샵



03월 제16기 정기주주총회



O! Highlight
2024년
1분기

2024 O!pening day



2024 O!pening day 단체 사진

2024 O!pening Day가 1월 3일 한국공학대학교 비즈니스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사업 목표 조인식, 사업 목표 발표, 팀 목표 콘테스트, 비전 드로잉 작품 소개, ESG 경영 선포식 등 오알켄의 한 해 방향과 목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승진자 및 오알켄인상 시상식도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4분기 오알켄인상에는 전사기획팀의 김선미 차장님(핵심가치), 제품개발팀의 김주연 과장님(대외), 구매자재팀의 최대성 대리님(대내)이 선정되었고, 2023년도 오알켄인상은 재무회계팀 윤지영 부장님(핵심가치), 구미 제조팀의 주미연 부장님(대내), 국내 영업팀의 김주석 차장님(대외)이 수상하셨습니다. 2023년 올해의 팀에는 최우수팀에 ERP TF팀이, 우수팀엔 기술혁신팀이, 장려팀엔 전산정보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오프닝데이 행사 이후엔 센터별 소통 모임을 통해 센터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알켄 후원 성악가, 아슬리코 오페라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

오알켄이 후원하는 성악가 바리톤 박준혁님, 소프라노 김도연님이 1월 8일(한국 시각)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75회 아슬리코 오페라 콩쿠르' 글로벌 파이널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오알켄 외 다수 기업의 후원으로 서울에서 개최된 '아슬리코 아시아 대회' 상위 입상자입니다. 이번 글로벌 파이널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오페라 '라보엠'의 남녀 배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두사람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생 오알켄 견학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생 & 오알켄 단체 사진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2~3학년 학생들이 2월 1일 오알켄을 방문했습니다. 전사기획팀, 구매팀, 제조팀, 품질팀 각 역할에 대해 배우고 오알켄 사옥도 탐방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학생들 덕분에 오알켄도 즐겁고 보람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설맞이 이벤트 '이한마당'



설맞이 이벤트 이한마당

2월 6일 오알켄에서 설맞이 이벤트 이한마당을 진행했습니다. 비행기 날리기, 개구리 접기, 개구리 달리기 등 추억의 게임부터 임직원 이름 맞추기, 윷놀이까지 다채롭게 구성되었습니다. 전사 직원들이 참여해 업무 중 짧게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평소 마주치기 힘들었던 타 부서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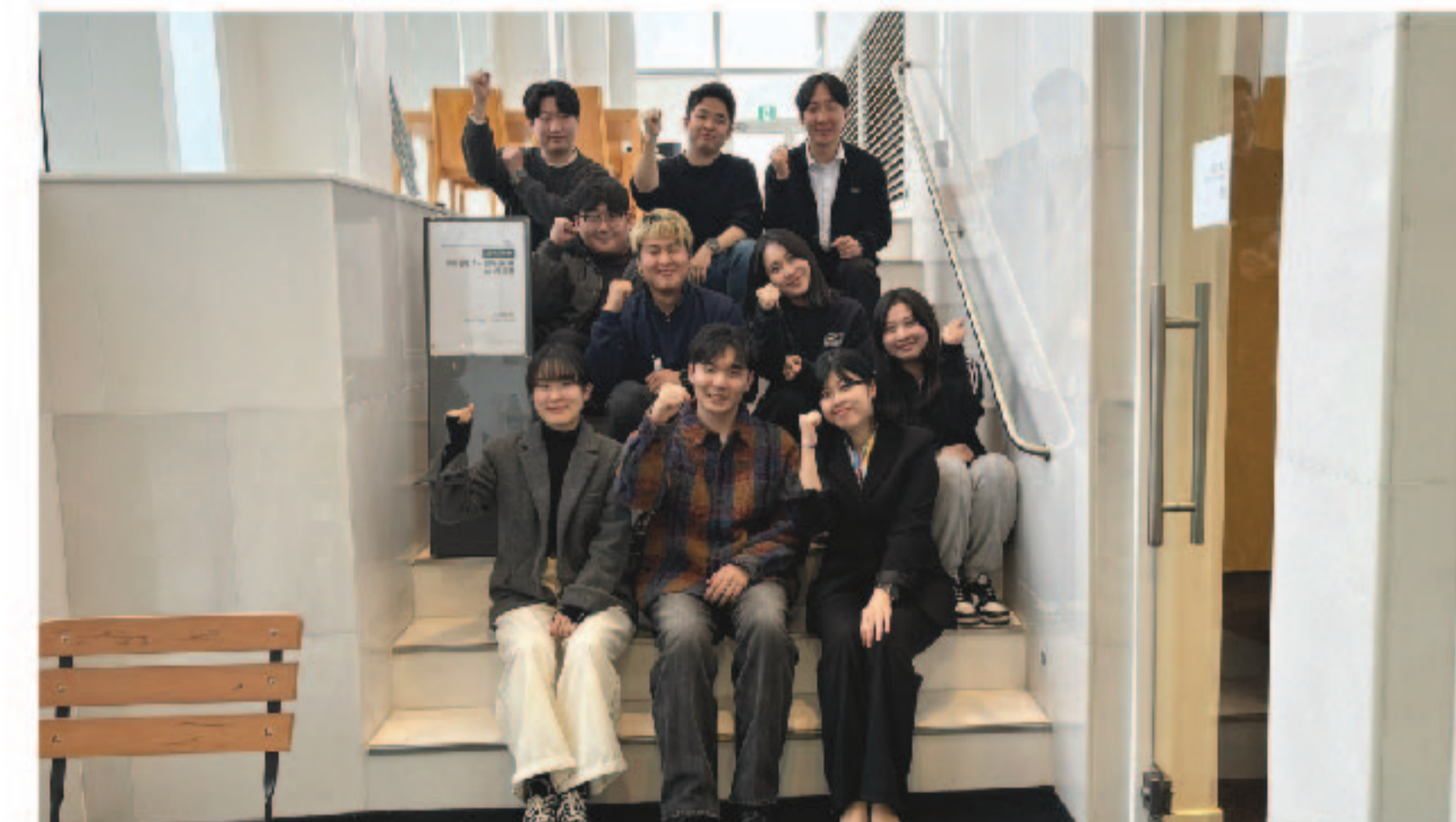
리더 독서 토론회



리더 독서 토론회 / 일이란 무엇인가(저자: 고동진)

2월 15일 오알켄 본부장 및 팀장을 대상으로 '리더 독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독서 토론회에서는 책 '일이란 무엇인가' (저자 고동진 삼성전자 전 사장)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일'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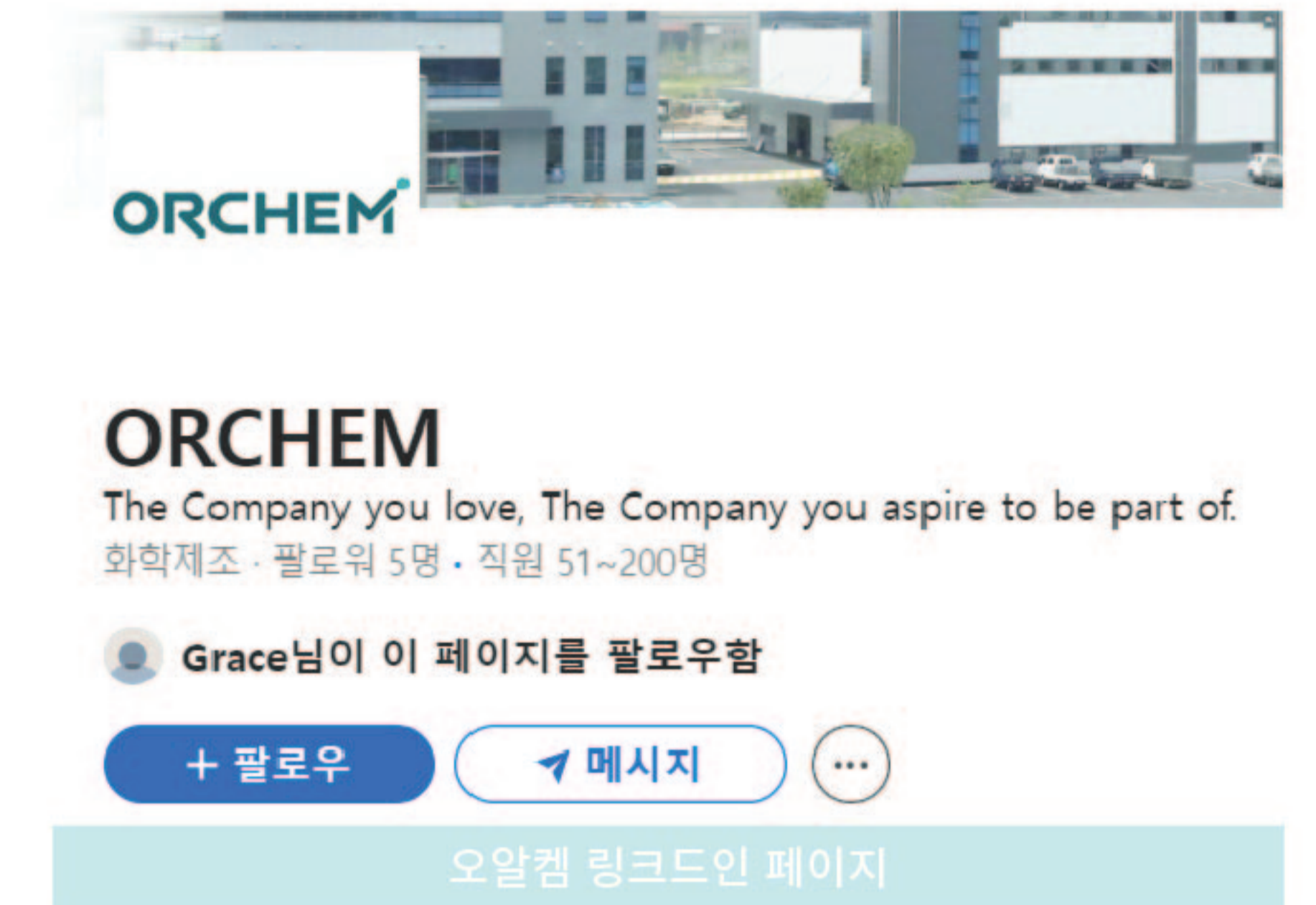
CA2기 워크샵



CA 2기 워크샵 단체사진

오알켄 CA2기가 2월 22일(목)~2월 23일(금) 1박 2일간 '조직문화 담당자의 역할 인식과 구성원들의 협력적 커뮤니케이션 도모를 위한 스킬 학습'을 위해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1일 차에는 강의를 통해 조직문화 담당자의 역할과 퍼실리테이션 역량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2일 차에는 배운 내용을 토대로 적용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알켄 조직문화를 이끌어 갈 CA2기의 활동을 응원해 주세요!

오알켄 링크드인 오픈



오알켄이 2월 26일 해외 홍보를 위해 링크드인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첫 게시물이 '세계일류상품' 인증에 핵심 역할을 하신 연구기획의 조소연 차장님과 선행개발의 성희철 과장님의 인터뷰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오알켄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올라갈 예정이니 임직원 여러분의 '좋아요' '팔로우'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링크드인 주소 : <https://www.linkedin.com/company/orchem9191>

심폐소생술 인식 및 실습 교육



심폐소생술 인식 및 실습 교육

심폐소생술 인식 및 실습 교육이 3월 13일 오알켄 4층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골든타임 4분! 내 두 손으로 살리는 생명, 잊지 마세요!

1.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의식 확인하기
2. 특정 인물 지목, 119 신고 및 AED 자동심장충격기 요청하기
3. 눈으로 호흡 여부 확인
4. 가슴 압박(1초 2회) 및 AED 자동심장충격기 시행

ORC SOLUTION의 근황 TALK

안녕하세요 ORC솔루션 박승영 기자입니다.

2024년도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계획하신 일은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2024년도 들어서 개인적으로 새로이 세운 계획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올해 첫 여행'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겨울은 유독 눈이 많이 와서 '갈 수 있는데 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SNS에서 겨울 산행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눈꽃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한국 국립공원공단에 지정된 덕유산 국립공원인데, 여러 산이 있었지만, 거리도 가깝고 또 올라가기도 비교적 쉬워서 올해 1월 말쯤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덕유산에 오르는 방법에는 리조트에서 곤돌라를 타고 편안하게 오르는 방법과 한발 한발 애써 걸어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겨울 산행은 처음이다 보니 설천봉까지는 리조트에서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고 정상인 향적봉까지 걸어 올라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편리한 만큼 곤돌라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라는 생각을 못 해서 기다리는 데에 꽤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괜히 곤돌라를 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력이 쑥 빠지더군요. 그래도 간신히 타고 올라가 설천봉을 보니, "아...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온통 새하얀 경관이 너무 예뻐했습니다. 사진 찍는 걸 잊을 정도로요. 설천봉에서 정상인 향적봉까지는 30분 정도 걸리는 데, 눈 덮인 덕유산의 모습을 보니 꼭 겨울 왕국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꼭 외국에 온 듯한 착각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산 정상 향적봉은 해발 1,614m 높이로 전라북도 무주와 장수, 경상남도 거창과 함양군 등 4개 군의 걸쳐있어서 국내 최고 눈꽃 산행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눈이 온 직후 더 예쁘고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니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진 : 덕유산 국립공원 / 박승영 촬영
오른쪽 상단 / 정은림님 / 김바바님 : 감사



용의 해를 맞이하여 특별한 한 해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투자한 절강성 공장의 완공이 임박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중국법인 전략회의 2024'가 올해 1월 17일 심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한국 본사 유재영 부사장, 이혜지 이사, 기세영 부장이 참석하였으며, 심천 법인의 박상은 법인장, 허문평, 등샤오레이, 우젠강, 류용, 왕핑, 장취안팡이 참석하였습니다. 절강 법인에서는 손성철 상무 이사, 안기철 부장, 천바오, 희소군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영업부, 제조기술센터, 절강 법인, 관리부 각 담당 부서별 2023년도 실적과 2024년도 부서별 목표 보고가 진행되었으며, 유재영 부사장은 각 부서에 2024년도 사업 계획과 주요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2024년도 중국 법인의 전략 슬로건 'FLY 2024, Reach 1138'을 발표 하였습니다.



슬로건 'FLY 2024, Reach 1138'은 2024년 절강성 공장 준공과 가동, 중국 법인의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한 1억 RMB 매출, 13개의 새로운 PTH 라인, 8개의 새로운 고객 영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부서 | 오픈 소스 : 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 강화, KPI 목표 명확화, 성과 창출
관리부서 | 비용 절감 : 비용 관리(물류, 조달, 접객 등)
절강성 공장 | 일정 준수 : 건설 일정 진행과 PCN 구현의 중요성

2024년 회사의 비전과 사명, 효과적인 전략 목표 설정, 자원 조정, 비용 절감, 계획 실행,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 도전 과제 해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뿐, 중요한 것은 현재이며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2024년 함께 도약하여 1138에 도달합시다!

ORCHEM Vina 2023 창립기념일 & 송년회

“참석해 주신 모든 직원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송년회이자 ORCHEM Vina 창립기념
행사이기도 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좋은 성과
거두길 기원합니다”

-민정식 법인장-

2023년 12월, ORCHEM Vina의 송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은 ORCHEM Vina의 창립기념일이기도 한데요, 직원 간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한 해의 성과를 함께 돌아보며 2024년
더 큰 목표를 위해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8주년 창립
기념식은 민정식 법인장님과 안희철 상무 이사님의 격려 인사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장기 근속자와 우수 근로자 포상이 진행
되었으며, 한 해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흥겨운
뒤풀이와 장기 자랑도 펼쳐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증정식
이 진행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회사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 직원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행사가 여러분의 2023년을 특별하게 장식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COO 이혜지 이사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지 이사입니다. ERP 프로젝트는 하나의 부서가 아닌 전사의 거의 모든 부서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큰 프로젝트인데요, 한 부서의 입장에서 프로세스가 정의되어져선 안되고 전사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하므로 기획팀장으로서 프로젝트 리더로 임명되어 본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이슈를 해결하고, 컨설팅업체와 협의하는 일 등을 했습니다. 부가적으로는 간식 담당이었습니다 ^^

Q. ERP 구축을 위해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본격적인 ERP 구축 전, 사전 작업을 약 6개월 정도 진행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일이었는데요, 현재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변화하길 원하는지를 정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프로젝트 추진 시에 발생할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물론 실제 추진하다 보니 생각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 방향성을 잘 설정하고 잘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Q. 어려운 과정이었던 만큼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한국 프로젝트는 마무리되었지만, 안정화 기간이 남아있고, 또 바로 중국, 연이어 베트남 프로젝트가 남아있어서 마무리는커녕 새로 시작하는 기분입니다 ^^ . 그래도 감사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PI 분들이 현업과 병행하며 프로젝트 추진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PI 분들의 노력과 실력이 아니었다면 한국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남은 해외 프로젝트도 화이팅입니다!

Q. ERP 구축 이후 목표하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해외법인의 현황을 본사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서 빠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경영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영활동을 여러 부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조직에 유용한 정보로 변환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다음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RP TFT INTERVIEW

구매자재 김흥덕 부장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매자재팀 김흥덕 부장입니다. 구매자재팀 신규 ERP 셋업 시 구매자재파트를 설계하고 리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진행 과정에서 특별한 에피소드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구매자재팀은 참여한 PI(김흥덕, 최대성)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협의하고 고민해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자랑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어려운 과정이었던 만큼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앞으로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꼭 사용하게 될 생각을 하게 되니 책임감이 커지고 그만큼 좋은 경험인 된 것 같습니다.

품질관리 김주완 과장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품질관리팀 김주완 과장입니다. 품질 모듈 PI를 담당했습니다.

Q. 진행 과정에서 특별한 에피소드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PI 및 오리진 컨설턴트분들과 술을(?) 나누며 오라클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PJT 기간 동안 몸이 아파 병원 치료를 자주 받고, 금주(禁酒) 덕분에 술을 마시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Q. 어려운 과정이었던 만큼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기존 ERP에 비해 개선(쉽고, 효율이 향상되고, 없어서 아쉬웠던 기능이 생긴)된 부분도 있고 개악된 부분도 있습니다. ERP가 만능은 아니기에 사용자 요구 구현에 한계가 다소 발생했죠. 그런 부분에서 당장 조금 불편하고,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사용자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의뢰하고 PI와 함께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더욱 완성도 높은 ERP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바로 당신이 PROCESS INNOVATOR!)

영업관리 이정은 과장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영업관리팀 이정은 과장입니다. ERP TF에서는 영업, 판매 부분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Q. 진행 과정에서 특별한 에피소드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직전 ERP 구축 때도 참여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업무 범위가 넓어져서 그 부분을 새로운 ERP에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회사만의 업무 방식을 스탠다드한 프로그램과 연계하기 위해 컨설턴트분과 합의점을 찾고자 했습니다.

Q. 어려운 과정이었던 만큼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국내 프로세스는 구현되었지만, ERP 안정화까지는 1년 이상 걸리는 작업 이고, 해외법인 확대 적용까지 남아있어 아직 완료되었다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그러나 구축 초반에 난항이 예상되었던 부분이 많이 개선되어 현재는 익숙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TV 제조 맹경남 과장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TV 제조팀 맹경남 과장입니다. 이번 ERP TFT에서 생산, 물류(출하, 납품), 설비를 담당했습니다.

Q. 진행 과정에서 특별한 에피소드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원래 TFT 멤버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담당인 제조 팀장님이 퇴사하신 뒤 차석으로 급하게 투입되었고, 초기에 다른 분들은 다들 TFT 업무에 매진할 때 저는 한동안 '난 누구?', '여긴 어디?'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진도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Q. 어려운 과정이었던 만큼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부서장님과 팀장님이 공식인 상황에서 제 업무까지 도맡아서 해준 원종호 주임께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TFT로 참여한 저도 힘들고 낯설었는데, 새로운 ERP 시스템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G-제조본부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ERP TFT	전산정보팀 박정수 차장	재무회계팀 임수정 대리
COO 이혜지 이사	중앙연구소 조소연 차장	구매자재팀 최대성 대리
구매자재팀 김흥덕 부장	영업관리파트 이정은 과장	영업관리파트 마유진 주임
재무회계팀 윤지영 부장	품질관리팀 김주완 과장	인사총무팀 김지은 주임
	MTV 제조팀 맹경남 과장	전산정보팀 황소영 사원



Inside ORChemer
ERP TFT 인터뷰

World Class Product of Korea 2023 세계일류상품 인증 Story

연구기획 조소연 차장 / 선행개발 성희철 과장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연구기획 조소연 차장
안녕하세요, 오알켄 연구기획팀의 조소연 차장입니다. 지난해 '세계일류상품'(World Class Product of Korea) 인증을 추진, 전반적인 과정을 총괄하였습니다.

선행개발 성희철 과장
안녕하세요, 오알켄 선행개발팀의 성희철 과장입니다. 지난해 '세계일류상품' 인증을 받은 제품인 '무전해화학동도금' 제품 중에서 메인 제품이었던 '장수명 촉매'를 개발했습니다.

Q. 세계일류상품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선행개발 성희철 과장
오알켄이 '무전해화학동도금'(PTH) 제품으로 '세계일류상품' 인증을 받았는데, 오알켄이 보유하고 있는 '무전해화학동도금' 제품 중에서 '장수명 촉매'를 특장점으로 내세워 인증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제품들을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단점이 될 만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 했는데, 워낙 오알켄의 '무전해화학동도금' 제품들이 타 회사, 경쟁사 대비 강점 있는 제품들이어서, 비교적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촉매 제품을 개선해 신규 개발을 했습니다. 이번에 촉매 제품까지 신규 개발을 완료하면서 오알켄이 '무전해화학동도금' 제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 세계일류상품 인증 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연구기획 조소연 차장
2023년 '세계일류상품 인증'을 사업 계획 과제로 선정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준비를 시작해 11월에 인증을 획득했는데, '세계일류상품' 인증은 제품의 우수성은 당연하고, 더불어 국내외 점유율, 수출 실적도 중요하게 평가를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제품을 개발하는 부서에 있다 보니, 오알켄 제품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이외의 수출이나 국가 점유율 등을 따져보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데, 특히 PCB 업계 자체가 제조 산업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편은 아니라, 수출 실적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증권사 레포트부터 시작해서 재무제표, KPCA 협회 자료까지 일일이 자료를 찾아 모으고 직접 로직을 만들어 제시해야 했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쉽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알켄 '장수명 촉매' 간단 소개!!!

오알켄이 개발한 '장수명 촉매'는 삼온과 고온에서 액 안정성을 확보해 사용주기를 2배 이상 연장, 수율을 최소 20% 이상 향상한 pd 촉매입니다. 해당 제품을 공정에 적용하면 원가의 25%(약 250억 원)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으며, 하절기 국내 운송 및 수출 운송 시 일어날 수 있는 색상 변화나 침전으로 인한 제품 변질이 없어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보 11호 산업/기술 동향 참고)

Q.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된 후 소감은 어떠셨나요?

연구기획 조소연 차장

처음 세계일류상품을 추진할 때, '왜 해야 하는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뒤돌아 생각해 보면 저희 팀만 잘해서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출 실적 관련해서는 영업 관리팀에서, 재무제표 관련해서는 재무팀에서, 제품 개발 관련해서는 연구소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모두의 노력이 합쳐져서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협업하며 하나의 목표에 달성한 이 모든 과정이 올해 오알켄의 경영 슬로건인 'One Team One Dream One Heart'와 통하는 과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선행개발 성희철 과장

신규 개발한 'pd 촉매' 제품에 대해 고객사에서 좋은 피드백이 있었고, 또 '세계일류상품' 인증에도 성공해서 회사 내외부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 같아 뿌듯하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앞으로 오알켄이 '무전해화학동도금'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에서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한 건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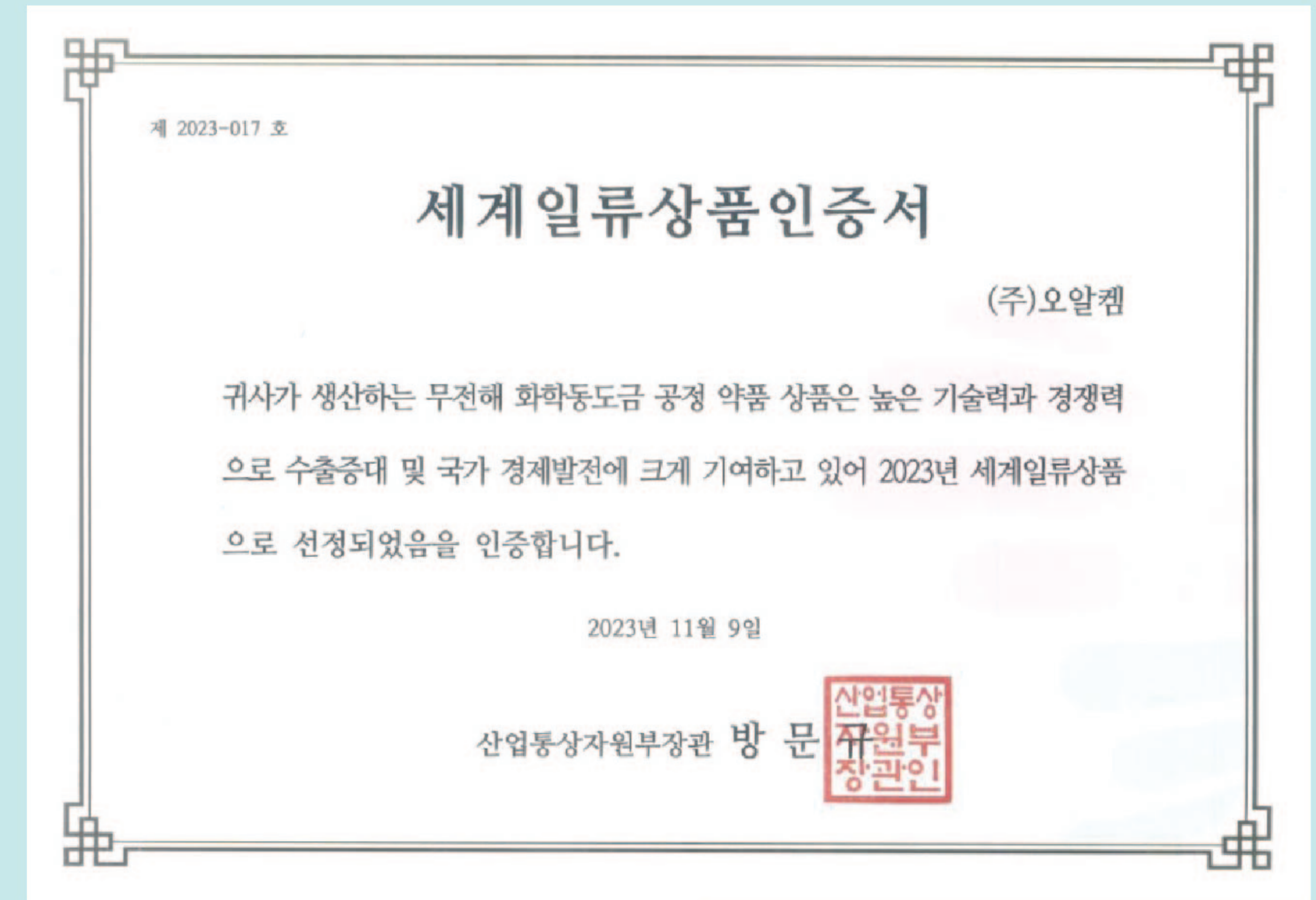
Q. 세계일류상품 인증 다음으로 목표하고 계신 건 무엇인가요?

연구기획 조소연 차장

지난해 '세계일류상품' 인증을 '무전해화학동도금' 제품으로 받았는데, 앞으로 '전기동도금'에서 우수한 약품이 개발된다면 '전기동도금' 제품으로 '세계일류상품'에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전기동도금'에서는 미국이나 일본 약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국산화되어 있는 약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를 하는 것과 같은데,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水滴穿石)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연구소 구성원들과 함께 꾸준히 노력한다면 이러한 성과가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행개발 성희철 과장

선행개발팀에서는 새로운 제품, 신사업을 포함해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최대한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서 오알켄이 PCB 약품을 국산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PCB 약품 업계는 외산 약품들이 지배하는 공정이 많은데, 오알켄 제품이 미국이나 일본 경쟁사를 제치고 국내를 넘어 전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제품이 되고 또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 되어 매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채 11기를 소개합니다

2023년 10월 입사, 3개월 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 입사한 공채 11기. 오일캠의 미래로 저러날 13명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제품개발 | 정아영, 홍채련
기술혁신 | 이훈희, 정준
분석기술 | 김나영, 조재형
선행개발 | 김관현, 김성범, 김혜정, 최수진
연구기획 | 김시연
전사기획 | 김정아
환경안전(구) | 김학범

전사기획팀 김정아 사원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채 11기로 입사한 전사기획팀 김정아 사원입니다.

Q. 오일캠에 입사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가 입사 지원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회사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복지와 더불어 함께 일하는 사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사수, 팀과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입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Q. 수습 기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수습 기간 내내 공들여 만든 사보가 최종 완성되었을 때요. 구미 공장에 직접 방문해 인터뷰도 하고, 동호회 취재도 해보면서 회사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들이 즐거웠고, 표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직접 레이아웃을 잡고 디자인해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약 3개월간의 에피소드가 담긴 사보들이 회사를 대표해 작성한 저의 일기장 같아 정이 많이 갑니다.

Q. 11기끼리 친한 것 같아요!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입사하고 2주 동안 함께 지내면서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함께 교육도 받고 워크샵도 가고 하면서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 부셔도 다르고,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동기들도 있어서 부서 이동 후에 많이 멀어질 줄 알았는데, 동기들이 잘 챙겨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현재 실무들 배우고 있는데, 대학적인 일과들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크게 사내 홍보에서는 사보 제작과 이벤트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고요, 온라인 홍보로는 블로그나 링크드인 등 SNS 게시물을 제작/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 홍보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인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사내 일정과 홍보 아이템에 따라 일과가 바뀌어서 저의 하루를 루틴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요즘은 사내 이벤트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 같아요!

Q. 오일캠과 부서 적응에 가장 도움을 주신 분은 누구인가요?

아무래도 민선경 과장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팀원 분들 모두 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특별히 민 과장님과 함께 홍보 업무를 하다 보니 과장님께서 업무에 어려움은 없는지 잘 살펴주시고, 홍보 파트만의 고충을 잘 공감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또 밥이나 간식도 자주 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오일캠에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현재는 주어진 일을 완성도 있게 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회사 내부와 PCB 업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홍보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보고 싶구요, 최종적으로는 늘 새로운 시도를 고민하며 권태로움을 느끼지 않고 꾸준히 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기술혁신팀 정준 사원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술혁신팀 신입사원 정준입니다. 저는 96년생이고 올해 29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Q. 오일캠에 입사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먼저 안산에서 일하고 있는 대학 동기 추천으로 오일캠을 알게 되었는데, 입사 모집 공고가 다른 곳에 비해서 되게 예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호기심이 생겼고, 검색을 해보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래 다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김포에 살고 있는데, 집이랑도 많이 멀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Q. 수습 기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송년회로 오케스트라를 봤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오케스트라에 별로 관심 없었는데, 연말 분위기에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수습 교육도 다 끝나서 동기들과 마음 편히 볼 수 있어서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 1년에 한 번은 보러 가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Q. 11기끼리 친한 것 같아요!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입사하고 인사총무팀에서 진행했던 2주간의 일정들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부터 말이 별로 없고 낯을 많이 가려서 아마 바로 실무로 들어갔으면 지금까지 한마디도 못 해 본 동기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첫날부터 앞에 나가서 자기소개도 하고, 같이 팀을 이뤄서 서바이벌 게임도 하고 하면서 제가 감추고 있는 모습을 다 보여준 느낌? 이 들어서 빨리 친해진 것 같습니다.



Q. 오프닝데이, 가족의 깜짝 영상 편지를 받았을 때 기분은 어땠나요?
영상 나오기 10분 전에 '신입사원 가족들의 축하 편지가 있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설마 우리 부모님도 나오나? 싶었는데 아니나다를까 첫 번째로 나오더라고요. 우리집 강아지(찌리)랑 같이 나와서 굉장히 난해한? 컨셉으로 찍어 주셨는데... 얼굴이 너무 뜨겁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정말 감동적이었고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영상에 나오지 않으셨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그 욕심이 많으셔서... 좀 더 특이한 영상 편지가 되었을 것 같은데 너무 다행이네요.

Q. 현재 실무를 배우고 있는데, 대학적인 일과를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각 고객을 돌아다니면서 현장 라인 관리업무를 배우고 있어요. 양산품이 불량 없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우리 약품이 적정 농도로 잘 유지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무자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아서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야 할 것 같고, 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더 키워서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Q. 오알켄과 부서 적응에 가장 도움을 주신 분은 누구인가요?
기술 부서에 들어와서는 모든 선임분이 적응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셔서 모든 기술혁신팀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기면서 같은 나이로 팀에 들어온 이훈희 사원이 옆에 있어서 의지가 많이 되고 존재 자체가 고마운 사람입니다.

Q. 앞으로 오알켄에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기술혁신팀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서 조기 진급을 한번 해보는 게 현재 저의 목표입니다. 만약 목표를 이루게 되면 앞으로 회사에 다니면서 동기 부여가 크게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팀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에 맞게 기본 업무들부터 차근차근 수행하고, 불량에 대해 다양하게 접근하는 열린 사고를 기를 계획입니다.



선행개발팀 김관현 사원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선행연구본부 선행개발팀 신입사원 김관현입니다.

Q. 오알켄에 입사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알켄에 대해 조사하면서 오알켄이 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PCB 전 공정 약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석 장비를 직접 보유하는 등 약품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처럼 오알켄이 R&D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쏟는 걸 보며 오알켄 성장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Q. 11기끼리 친한 것 같아요!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입사 첫날부터 인사총무팀에서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때 술도 같이 마시면서 빠르게 친해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자주 동기들과 볼링, 당구 등 운동도 같이 하고 술자리도 자주 하다 보니 많이 가까워졌어요. 수습 기간에 처음 본 친구들이 아닌 전부터 알아 온 친구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각 부서로 배치된 후에도 동기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어요.

Q. 현재 실무를 배우고 있는데, 대학적인 일과를 들어보고 싶어요!
최근까지는 박리공정과 TMAH 관련 논문 및 특허를 찾아보며 지식을 넓히고 있습니다. 선행개발팀 자체가 지금 양산되고 있는 제품보다 더 개선된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하다 보니 다양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논문과 특허를 찾아보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관련 실험을 진행하면서 실험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Q. 오알켄과 부서 적응에 가장 도움을 주신 분은 누구인가요?
선행개발에 계신 선배님들 모두 부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특히 사수이신 이상우주임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PCB산업과 박리제 관련 정보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저에게 메커니즘부터 관련 이론까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회사 생활에 필요한 내용들도 많이 알려주셔서 직무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오알켄에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현재 PCB 산업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TMAH free 박리제를 이상우 주임님과 함께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충족하고 유해물질이 아닌 박리제를 개발해 주요 고객사에 납품하면서 오알켄이 화학뿐만 아니라 박리제에도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보고 싶습니다.



연구기획팀 김시연 사원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10월 공채 11기로 입사한 연구기획팀 김시연 사원입니다.

Q. 수습 기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동기들과 워크샵으로 에버랜드에 갔던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비가 와서 다 같이 우비 입고, 판다 모자 쓰고 푸바오를 보러 갔는데, 사진도 찍고, 정말 많이 뛰어다녔어요! 숙소로 돌아간 후엔 다 같이 바비큐도 먹었습니다. 이때 동기들과 1박 2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제일 친해졌던 것 같아요.

Q. 11기끼리 친한 것 같아요!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우선 수습 기간 중 다 같이 모여서 교육받는 기간이 약 2주 정도였습니다. 그때 동기들과 두루두루 친해졌어요. 이후에 조를 꾸려서 부서별 교육 받을 때도 출퇴근 시간엔 다 같이 모여서 얼굴을 봤었기에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서로 잘 챙겨주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라 더욱 돈독한 것 같아요.

Q. 현재 실무를 배우고 있는데, 대학적인 일과를 들어보고 싶어요!
현재는 업무를 익히고 배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구기획이 하는 업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연구소 인원이 많아지면서 연구 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업무 미팅에 참여하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Q. 오알켄과 부서 적응에 가장 도움을 주신 분은 누구인가요?
현재 연구기획팀에는 팀장님인 조소연 차장님, 박연수 사원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 팀원입니다. 수습 기간에 팀장님께서 교육해 주시느라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부서 배치 받고, 신입사원 두 명을 이끌기 매우 힘드셨을 것입니다. 현재 업무도 많으실 텐데 시간 내셔서 하나하나씩 알려주시고, 또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때 상담도 해주십니다.

THANKS TO ♥
조소연 팀장님!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그리고 함께 팀이 된 박연수 사원한테도 즐거움을 줘서 고맙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동현 상무님, 항상 챙겨주시고, 다독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ㅎㅎ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연구기획팀 화이팅!! 선행연구본부 화이팅!! 오알켄 화이팅!!



제품개발팀 홍채련 사원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6세 제품개발팀 신입사원 홍채련입니다.

Q. 오알켄에 입사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채용설명회에서 회사에 대해 소개를 들었을 때 회사의 목표가 뚜렷하고 PCB 약품 관련 회사 중 오알켄이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입사하고 싶었습니다.

Q. 수습 기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수습 기간 중 제품개발팀에서 교육받을 때 팀원별로 용액 조성을 다르게 하여 박리액을 제조한 일이 있습니다. 구성에 따라서 박리 속도가 다른 것을 보면서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Q. 11기끼리 친한 것 같아요!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OJT 때 다 같이 게임에 참여도 하고, 저녁도 먹고, 수습 때 로테이션 돌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며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오프닝데이, 가족의 깜짝 영상 편지를 받았을 때 기분은 어땠나요?

평소에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영상에서 잘할 거라고 믿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선물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Q. 현재 실무를 배우고 있는데, 대략적인 일과를 들어보고 싶어요!

현재 DES공정 파트에서 Issue 개선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LAB에서의 실험을 통해서 Issue를 해결하고 회사 매출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Q. 오알켄과 부서 적응에 가장 도움을 주신 분은 누구인가요?

사수이신 장상원 사원님 덕분에 부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 목적,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며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Q. 앞으로 오알켄에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DES 공정에 대해 더 이해도를 높여서 Issue 해결뿐만 아니라 고객사가 원하는 성능의 DES 공정 관련 약품을 개발하여 판매해 보고 싶습니다.



분석기술팀 조재현 사원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중앙연구소 분석기술팀의 조재현 사원입니다.

Q. 11기끼리 친한 것 같아요!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아무래도 같이 3개월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으니 친해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부담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기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Q. 오프닝데이, 가족의 깜짝 영상 편지를 받았을 때 기분은 어땠나요?

처음 다른 동기 부모님의 영상 편지가 나왔을 때 '그 동기만 특별히 영상이 있었구나' 했는데 다른 동기들 가족의 영상도 차례로 나오자 '저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집에서 매일 보는 부모님이지만, 영상으로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Q. 현재 실무를 배우고 있는데, 대략적인 일과를 들어보고 싶어요!

지난달에는 SEM, 조도계를 활용하여 시료의 표면 분석을 주로 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CVS, 전위차적정기를 사용해 여러 협력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약품에 들어있는 첨가제 및 염소 농도를 측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Q. 오알켄과 부서 적응에 가장 도움을 주신 분은 누구인가요?

모든 분이 다 감사하지만 아무래도 같은 분석기술팀 내 유일한 동기인 김나영 사원이 있어 줘서 고맙습니다.

Q. 앞으로 오알켄에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현재 사용 중인 장비를 빨리 통달해서 분석기술팀의 톨니 바쿠가 되고 싶고 최종적으로는 참된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 O!Relay

다영 안녕하세요, 제품개발팀 이미정 파트를 맡고 있는 양다영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품개발팀 화학동 파트를 맡고 있는 정아영 사원입니다. **아영**

Q 회사 동갑내기분을 만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다영 (띠)동갑이라는 걸 인터뷰 요청을 받고 나서 알았어요.

회사에서 나이가 가장 어리다고는 들었는데,

저와 띠동갑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같은 팀이라서 좋아요. **아영**

나이 차이 안 느껴지지 않아요??

다영 그렇게 생각해주니까 좋네요, 숫자로 들으면 많이 차이 나 보이는 데, 실제 대화해보면, 차이를 많이 느끼진 못하거든요. 아영씨 보니까 회사 막 입사했을 때 생각도 나네요.

Q 서로에게 궁금한 점 한가지씩 물어봅시다!

과장님은 퇴근하고나면,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아영**

다영 아이가 있다보니 퇴근하고 나면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아이가 7살이거든요, 아이와 놀다보면, 개인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영씨는 취미 생활하는 게 있나요?

아영 저는 요즘 요가를 다니고 있어요. 입사 전에 원래 했었는데, 최근 다시 다니고 있어요. 저는 사실 배우고 싶은 게 많아요. 요가 말고 골프나 아니면 다른 운동들도 배우고 싶은데, 팔 힘을 기를 수 있는 운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일하면서 팔 힘을 써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가끔 종이 인형 같다고 느껴져서요 ㅎㅎ



물래이 인터뷰는 선정된 주제에 이르는 대상자를 찾아 인터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노 디포에서는 물래 동갑내기 인터뷰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Q 만약 두 분이서 동갑내기 MT를 떠나다면, 어디로 가고 싶은가요?

다영 성향이 E일줄 알았는데, I라고 들었어요, 활동적인 것 보다, 드라이브나 바다로 떠나면 좋을 것 같아요.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하면, 회사를 벗어나서 힐링도 하구요.

'힐링' 좋아요! 저희 둘 다 힐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영**

저도 '힐링'을 주제로 생각해봤는데, 제주도 들레길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다도 보면서 걷고 잘 쉬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다영 작년에 필라테스를 시작했어요, 전부터 '해아지'하다가 작년에 마음 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두달치를 끊고 마지막 수강을 하는데, 지속할지 엄청 고민이 되었어요. 몸이 확실히 좋아지긴 하는데, 퇴근 후에 운동을 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집과 거리가 멀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고 록을 했습니다. 꾸준히 하니 확실히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하길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이외에도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예전부터 요리도 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늦진 않았지만, 그때 할 걸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일단 해봐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아직 어리고, 또 퇴근 후에 시간이 많잖아요. 기숙사 생활도 하고 있는 지금이 자기 개발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자기만의 시간이 많아서 이런 시기를 잘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영 양 과장님과 같은 팀이지만, 파트가 달라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업무도 다르고 자리도 멀고, 점심시간 외에는 대화하거나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영 내부적으로 조직 문화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점심도 함께 먹고 업무적으로도 좀 여유를 가지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CA 2기 Workshop

오알켄 조직문화의 변화를 주도할 CA 2기가 출범했습니다. 한 해 동안 오알켄의 '협동&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적용하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할 텐데요, 지난 2월 22일(목)부터 23일(금) 1박 2일 동안 '조직문화 담당자의 역할 인식과 구성원들의 협력적 커뮤니케이션 도모를 위한 스킬 학습'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해요! 1일 차에는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강의와 토의, 실습에 참여했는데요,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와 조직문화 담당자의 역할, 현재 오알켄의 조직문화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퍼실리테이션(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 도모를 위해 중재하는 과정) 역량을 위한 교육도 진행되었습니다. 2일 차에는 배운 내용을 토대로 CA 2기 자체 회의가 진행되었답니다! 앞으로 오알켄의 조직문화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 넣을 CA 2기 직원들의 활동을 응원해 주세요!



Inside ORChemer
O! Relay Interview

Change Agent
CA 2기 워크숍

즐거로운 직장생활

2024년 우리의 목표

“Plating No.1 글로벌 ORCHEM”

One team One dream One heart

양적 목표

매출 합계 1,009억 (KR 700억, CN 184억, VN 126억)
영업이익 73억 (KR 70억, CN 0.1억, VN 2.4DJR)
동도금 제품 Line up 확보 (4개)

질적 목표

절감 공장 운영 정상화 환경·안전사고 ZERO
에너지 사용량 5% 감축 글로벌 통합 ERP 구축
베트남 R&D센터 구축 GPTW 긍정지수 80%

팀 사업 목표

- 국내+해외 영업팀 / 영업관리 파트 | 수평화확대 확대&중국시장 경쟁력 확보 통한 전 법인 1,000억원 매출 달성
- 구매자재팀 | 국내외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 확보
- 전산정보팀 | 임직원들이 편리한 환경에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안전한 IT 환경을 제공하자
- 인사총무팀 | 부서간 장벽을 해체하고 협업을 장려하자
- MTV제조팀 / 구미제조팀 | 제조관리 고도화와 적극적 마인드로 깨끗·안전·효율 공장을 만들자
- 제품개발팀 / 기술혁신팀 | 제품성능 Upgrade 및 연구원 기술력 강화를 통한 제품&기술분야 고객만족 1등 기업이 되자
- 분석기술팀 / 선형개발팀 / 연구기획파트 | 선진 연구관리 시스템 및 기반기술 역량강화를 통한 미래 신제품 개발 경쟁력 확보
- 재무회계팀 | 수익성&내부통제&ESG 관리체계구축
- 품질관리팀 | 업무표준화&원자재/제품 품질관리 강화 활동을 통한 글로벌 고객 만족 품질 시스템 구축
- 환경안전팀 | 선제적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안전·환경 경영
- 전사기획팀 | 전략경영 고도화 및 해외법인 경영 안정화를 통한 지속 성장형 글로벌 ORCHEM 구축



2024

O!pening day

2024년 1월 3일 수요일, 한국공학대학교 비즈니스 센터에서 2024 O!pening day 가 열렸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기 앞서 경영 목표와 팀별 목표를 공유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정리하고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진급 및 시상식도 진행되었는데, 총 27명이 승진하였고, 총 10명이 오알캠상을 수상하였으며, 총 3팀이 올해의 팀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고생한 오알캠 임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승진자



임원 승진자

G-혁신본부 김남하 전무이사
G-영업본부 양승환 상무이사
G-선형연구본부 조동현 상무이사



부장~과장 승진자

인사총무팀 홍흥기 부장
구매자재팀 김흥덕 부장
환경안전팀 김세진 부장
전사기획팀 김선미 차장
연구기획파트 조소연 차장
VN R&D 센터 김연홍 차장
기술혁신팀 천용필 과장
선형개발팀 성희철 과장
MTV 제조팀 맹경남 과장
전사기획팀 체재석 과장



대리~주임 승진자

제품개발팀 이진우 대리
선형개발팀 박성우 대리
기술혁신팀 이진규 대리
인사총무팀 김채연 주임
분석기술팀 석지은 주임
구미 제조팀 김재민 주임



기장~선임 승진자

MTV 제조팀 차영배 기장
MTV 제조팀 김정식 기사
품질관리팀 유현춘 기사
구미 제조팀 유승수 기사
MTV 제조팀 주용기 기사
MTV 제조팀 오근창 선임
MTV 제조팀 정태훈 선임
구미 제조팀 김민수 선임

2023년 4분기 오알캠인상



핵심가치(소통협력) 전사기획팀 김선미 차장
업무성과(대외) 제품개발팀 김주연 과장
업무성과(대내) 구매자재팀 최대성 대리

2023년 오알캠인상



핵심가치(프로정신) 재무회계팀 윤지영 부장
업무성과(대외) 구미 제조팀 주미연 부장
업무성과(대내) 국내영업팀 김주석 차장

서전상



중앙연구소부문 선형개발팀 김대균 주임
영업부문 해외영업팀 기세영 부장
관리부문 인사총무팀 김채연 주임
현장부문 구미제조팀 유승수 선임

올해의 팀



2023 최우수 팀

ERP TF팀
COO 이혜지 이사
구매자재팀 김흥덕 부장
재무회계팀 윤지영 부장
전산정보팀 박정수 차장
중앙연구소 조소연 차장
영업관리파트 이정은 과장
품질관리팀 김주완 과장
MTV 제조팀 맹경남 과장
재무회계팀 임수정 대리
구매자재팀 최대성 대리
영업관리파트 마유진 주임
인사총무팀 김지윤 주임
전산정보팀 황소영 사원

2023 우수팀

기술개발본부 기술혁신팀
2023 장려팀
G-혁신본부 전산정보팀

2024 O!pening day



● 펄스 도금

(오알켄 연구기획파트 박연수 사원)

전자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소형화로 인해 전자 부품의 경박단소화(얇아지고, 미세해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리 전해도금으로 생산된 극동박에 대한 요구사항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해도금의 방법으로는 정전류법, 정전압법, 펄스법 등이 있습니다. 전해도금 시, 첨가제를 첨가하여 전착물의 전기전도도, 결정 크기, 결정 구조와 같은 박막의 특성을 개선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요, 다만 전해액에 들어 있는 첨가제의 양 조절과 모니터링이 쉽지 않다는 점 또 첨가제로 인한 단가 상승과 처리의 어려움, 환경 오염 야기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해 도금법들 중 '펄스 도금법'(Pulse Plating)이 사용되는데요, 펄스 도금법은 정전류 도금법에 비해 도금 표면의 void 감소, 굽힘부의 균열 감소, 내식성 향상 등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part1. 펄스 도금(Pulse Plating)

펄스 도금이란 펄스 파형의 전류를 이용하여 도금하는 전기 도금법을 말합니다. 첨가제 없이 평활도금면(균일하고 평평한 도금면)을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PCB hole 미세화에 따른 기존 도금 방식의 한계로 펄스 도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hole이 워낙 미세하다 보니 도금액이 hole 속으로 침투하기 어려워진 건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수평형, 수직형 도금 장비로는 미세 비아 홀(micro via hole)을 도금할 수 없어서 전류를 일정하고 균일하게 걸어주는 방식으로 종횡비(가로 대 세로 비율, Aspect Ratio)가 큰 미세 비아 홀(micro via hole)을 도금할 수 있는 펄스 도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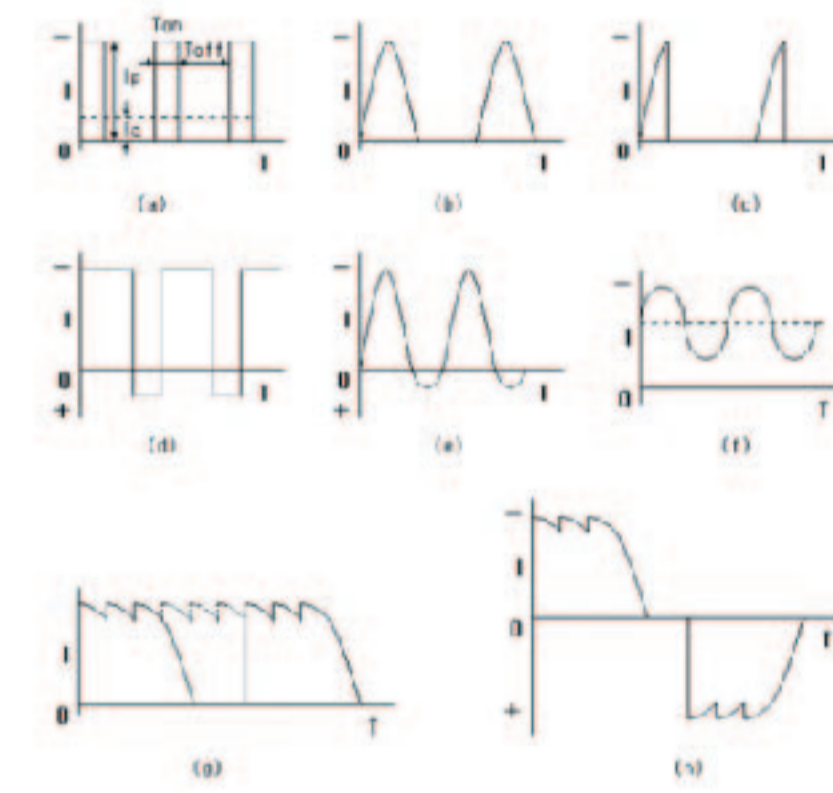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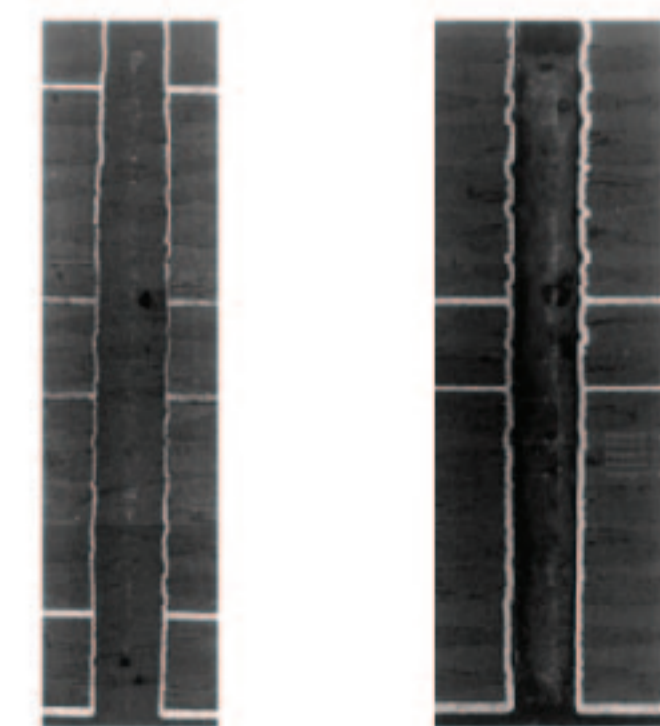


그림 1. Pulse 파형 예시

최근에는 역펄스 도금(reverse pulse plating) 기술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역펄스 도금은 DC(직류, Direct Current) 방식과 비교했을 때 hole 속의 도금 두께와 균일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파형의 배합에 따라 원하는 형태로 도금할 수 있어 필요 두께에 따라 파형의 변화를 주어 도금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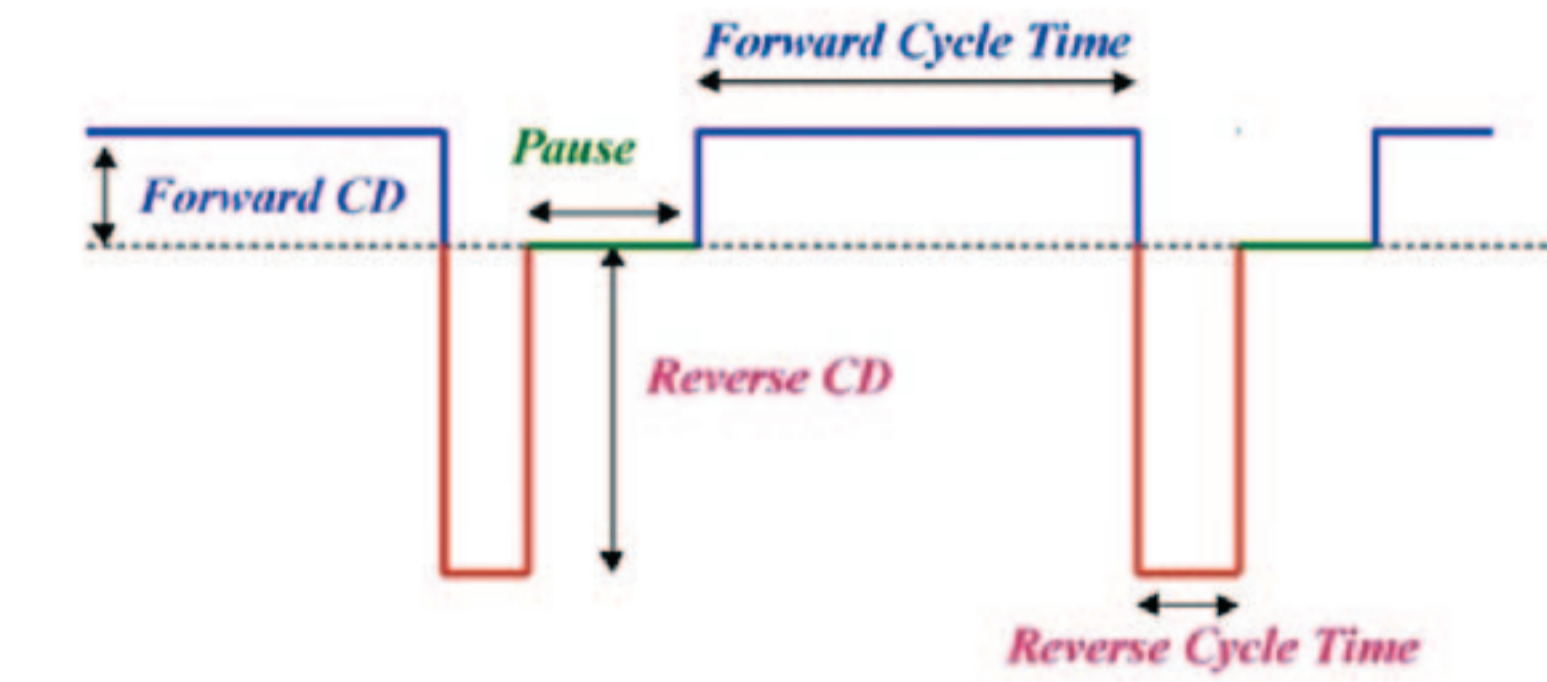


(a) DC plating (b) PPR plating

그림 2. DC와 PPR 도금의 비교 사진(A/R=10.8, 30ASF)

part2. 역펄스 도금(reverse pulse plating)

역펄스 도금이란 정전압, 역전압을 주기적으로 바꿔 걸어주면서 도금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순간 고전류밀도로 도금하여 높은 열전도도, 도금면 균일화, 내부식성 증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금 시간 단축과 AR이 큰 hole 도금이 가능하며, 내부 응력 및 균열을 감소시키고 경도/연성 등 기계적 성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part3. 역펄스 도금을 이용한 도금 방법 : 브릿지 도금(X-bridging)

깊은 hole을 도금하게 되면 코너 부분에 전류밀도 증가로 도금층의 두께가 다른 부분에 비해 두꺼워지는 과도금이 발생하여 hole 입구를 막게 됩니다. 따라서 내부가 구리로 채워지지 못하는 void(빈 공간) 등의 불량이 발생하는데, 브릿지 도금(X-bridging)은 two-step으로 도금을 진행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 X자 모양으로 먼저 도금한 후 두 번째 단계에서 hole속 나머지 빈 공간을 도금함으로써 void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void 발생 시, PCB기판의 층과 층 사이의 결합력이 약해지고, 솔더 접합부의 분리, 혹은 박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신뢰성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void 발생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브릿지 도금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코어층을 충전함으로써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향상 시킵니다. 또한 표면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도금하기 어려운 복잡한 형태의 부품도 균일하게 도금 처리를 할 수 있으며, 높은 열전도율과 높은 종횡비의 hole에도 적용할 수 있어 제품의 수율은 높이고 처리 비용과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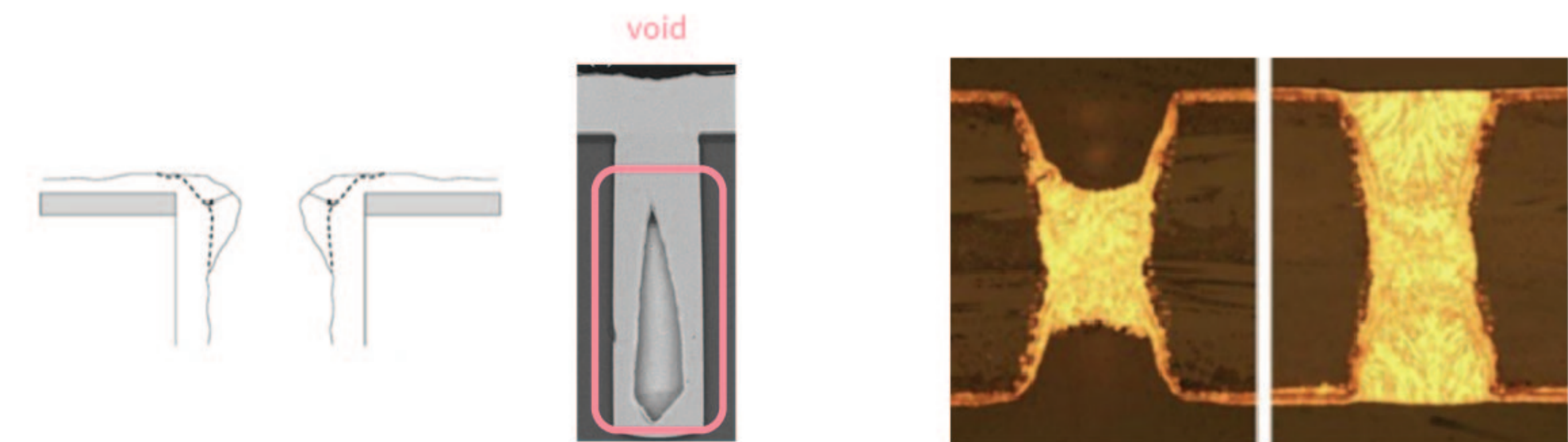


그림 3. 브릿지 도금(X-bridging)

O! Language

처음 만난 사이라면, 당연히 자기소개부터 해야겠죠?

직장 혹은 일상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봅시다.

처음 뵙겠습니다.

初次见面

Rất vui được gặp bạn.

제 이름은 오몽이 입니다.

我的名字叫Omongee

Tên tôi là Omongee.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很高兴能和你一起工作

Rất vui được cùng làm việc ạ.

저는 오알켄 영업팀 대리입니다.

我是ORCHEM销售部的职员

Tôi là đại diện của đội ngũ kinh doanh ORCHEM.

지난 2018년에 입사했고 오알켄에서 근무한지 5년되었습니다.

2023年进入公司, 在ORCHEM工作一年

Tôi đã gia nhập công ty vào năm 2018 và làm việc tại ORCHEM được 5 năm.

저는 000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我在000大学主修经营学

Tôi học chuyên ngành kinh doanh tại trường đại học 000.

오알켄에 입사하기 전에 000 회사의 영업팀으로 근무했습니다.

在进入ORCHEM之前, 我在000公司担任销售部的实习生

Trước khi gia nhập O'Alkem, tôi đã làm việc với tư cách là đội ngũ kinh doanh của công ty 000.

국적은 한국입니다.

国籍是韩国

Quốc tịch là Hàn Quốc.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居住在京畿道安山市。

Tôi đang sống ở Ansan, Gyeonggi-do.

기혼이고, 자녀는 딸 1명 있습니다.

已婚, 有一个女儿

Đã lập gia đình, có một con gái.

저는 사교적이고 다정한 성격입니다.

我是社交和亲切的性格。

Tôi có tính cách xã giao và tình cảm.

저의 내선 번호는 000입니다.

我的分机号码是000。

Số điện thoại nội bộ của tôi là 000.

앞으로 문의사항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

以后如有疑问, 请联系这个号码。

Sau này nếu có thắc mắc gì hãy liên hệ với số này.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今后请多多关照。

Sau này mong được các bạn chiếu cố.

Chào mừng các bạn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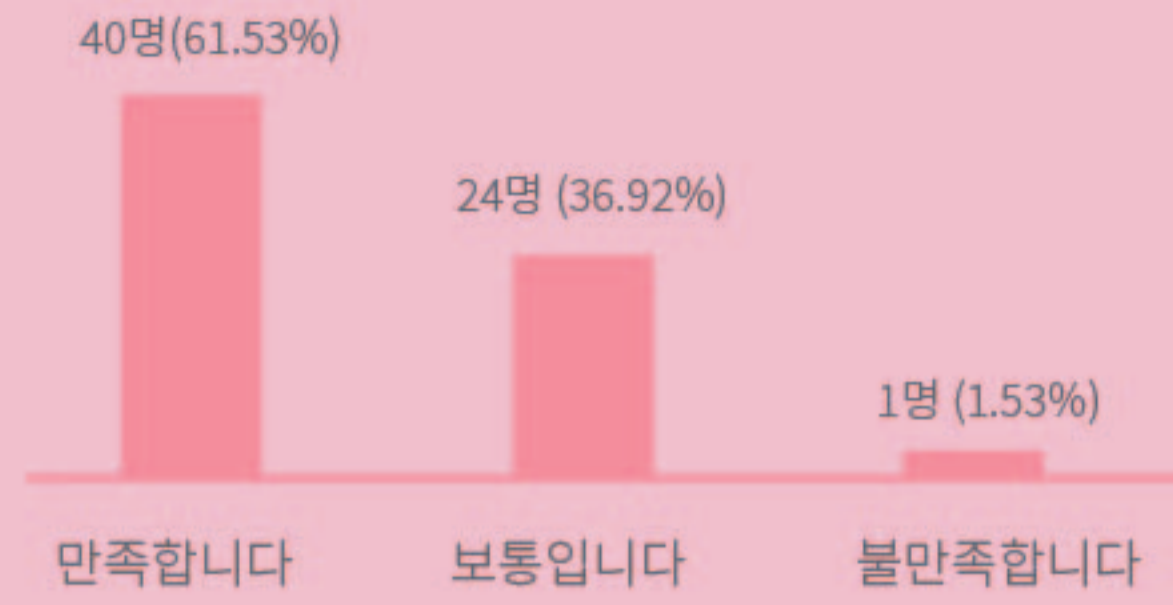
欢迎光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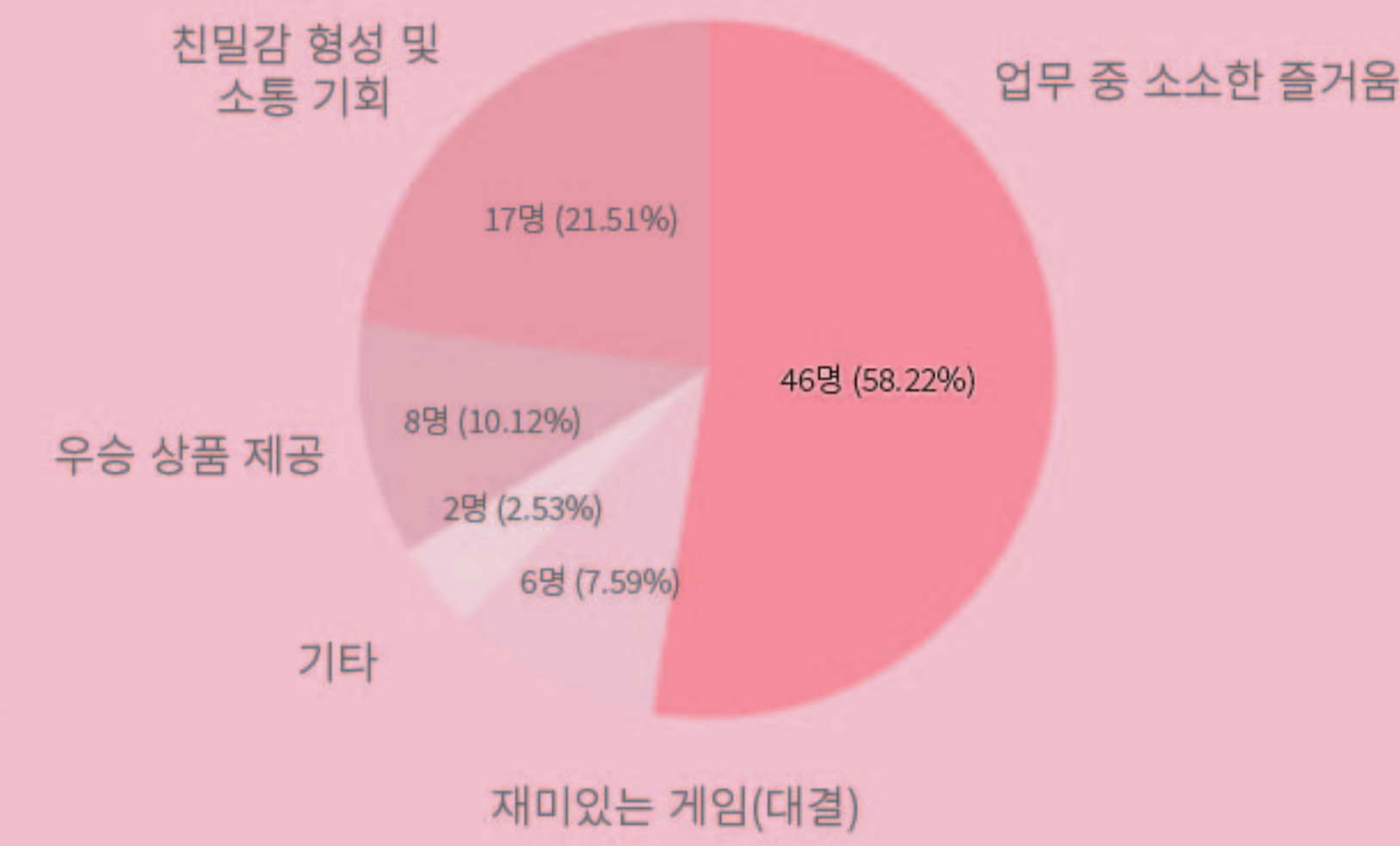
이!한마당 만족도 조사

설문 참여 인원 6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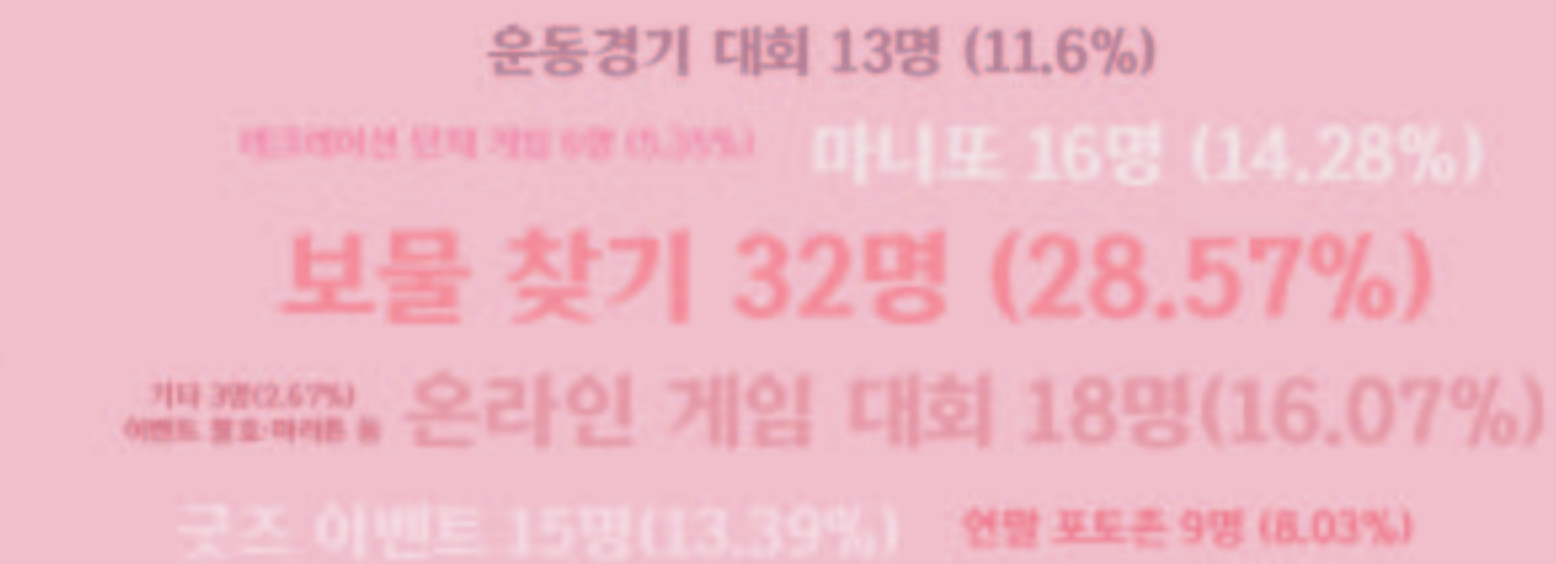
이!한마당 전반적인 만족도



만족스러웠던 점



이벤트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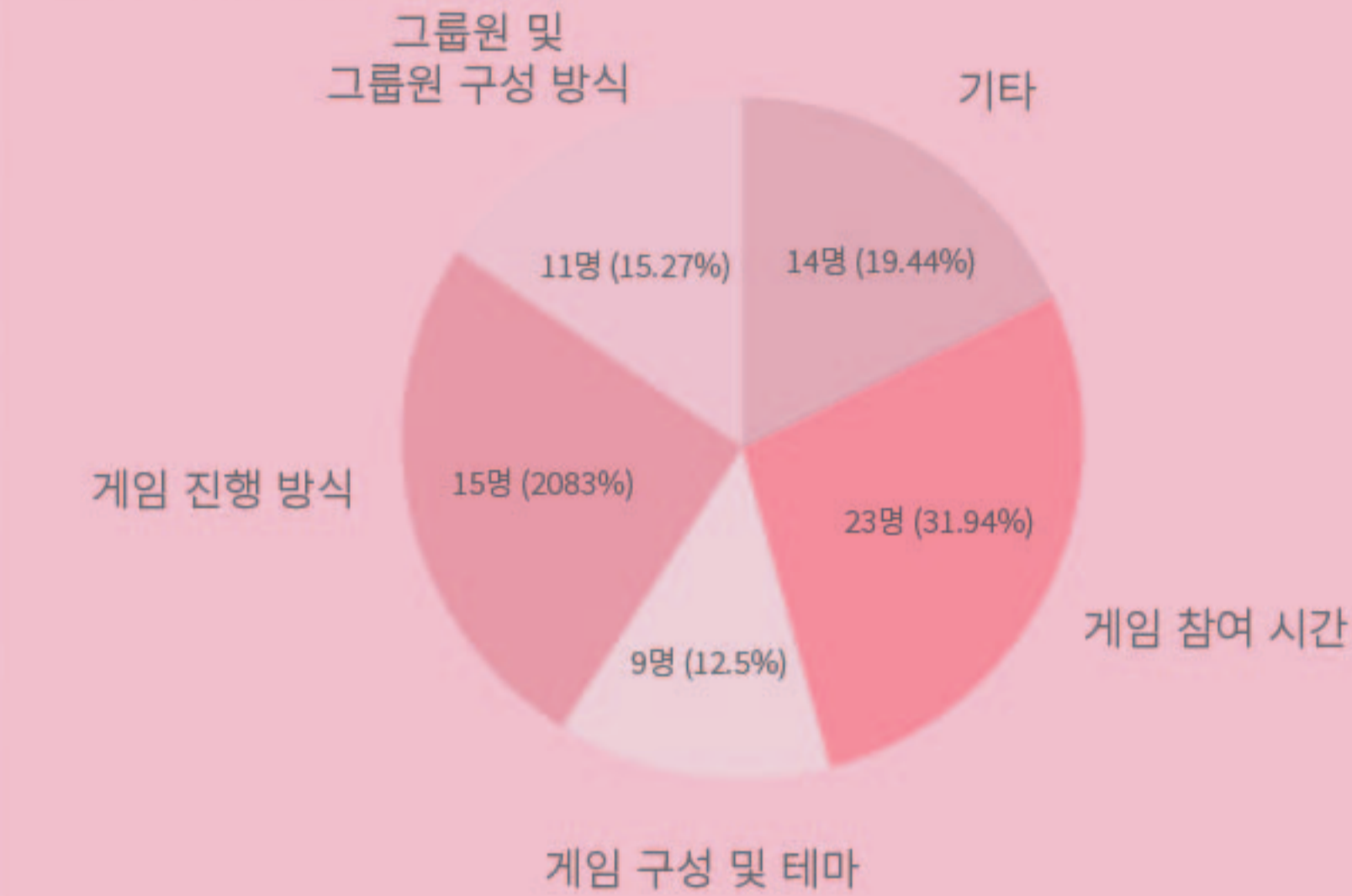
아쉬운 점&개선점

직원들과의 친밀감 형성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종목별로 나눠져 하다보니 같이하는 느낌이 적어 아쉬웠습니다. 그룹이나 부서별 보다는 전체가 다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목별로 게임이 진행되어 그룹원과의 소통이 어려웠고, 그룹원의 대결을 구경하거나 응원할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룹별로 참여 인원 편차가 심해 아쉬웠습니다.
 타 부서분들과 소통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한정적이었습니다.
 임직원 이름 맞추기 게임이 부담스럽고 미안했습니다.
 게임을 단순화해서 집중도와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목별 게임 참여 시간이 짧았습니다.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그룹장 선정 방식이 아쉽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웠던 게임



아쉬웠던 점



이벤트 횟수 선호도 (연 기준)



사내 이벤트에서 기대하는 것

다른 부서와 친해지고 싶어와
 업무 중간 소소한 즐거움과 스트레스 해소
 타 부서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채널로 이용하고 싶습니다.
 사무용품 같이 업무에 있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은 선물

자유 의견

준비해주시는 담당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것 만큼 어려운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식탁한 일터에 그래도 한번씩 있는 이벤트 괜찮은거 같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재미있는 테마 발굴이 필요한 것 같아요!

Earth Day



지구를 구해라! 지구의 날

(사내기자단 김학범 사원)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은 자연 보호 운동가들이 제정한 환경 보호 운동인데요, '지구의 날'이 올해로 벌써 55번째를 맞이했다고 해요.

환경을 사랑하는 오알캠인 여러분, 가장 쉬운 환경실천운동인 소등하기로 지구를 지키는 스위치를 함께 내려보는 건 어떨까요?

지구의 날 유래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미국 위스콘신주의 게이로드 넬슨 상원의원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 '지구의 날'을 주창한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 190개국에 참여할 만큼 세계적인 규모의 시민운동으로 확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부터 매년 '지구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을 기후변화 주간으로 정하여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생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날' 기념 전국 소등 행사

'지구의 날'인 4월 22일, 오후 8시부터 8시 10분까지 단순히 10분간 소등하는 행사입니다. 불을 끄고,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막음으로써 이산화탄소(CO2)와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지난 2020년 소등 행사를 통해 온실가스가 약 53ton이 감축되고 전력 사용량도 절감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53ton의 이산화탄소는 30년 된 소나무 약 8,00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습니다. 각 지역의 공공기관과 기업은 물론 가정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다고 하니 많은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소등하기!! 소등하는 습관을 가져보아요!

첫째. 사무실 또는 회의실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이 소등하기

둘째. 점등 되어있는 빈방을 발견하였을 때 대신 소등하기

셋째. 일괄 소등장치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기

넷째. 4월 22일 오후 8시 소등 행사 많은 사람에게 홍보하기!

! Research

사내 이벤트
이!한마당
만족도

! Campaign

소등 캠페인

1 멘토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 가기	2 51점 이용하기	3 사내업무물 사용법 알려주기
4 회사에서 제일 좋은 공간 소개하기	5 이카페 같이 이용하기	6 멘토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 가기
7 스포츠 같이 진행하기	8 점심시간 같이 보내기	9 취미생활 공유하기

BINGO!!

친해지길 바라!! ORCHEM 버팀목 프로그램

사내 구성원들의 친밀한 관계 형성과 신규 입사자의 업무 적응을 위한 '버팀목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 대상**
버팀목
 - 멘티: 신규 입사자
 - 멘토: 주임급 이상의 직원으로 근속 최소 1년 이상자
- 버팀목+**
 - 멘티: 기존 재직자 중 대리~부장
 - 멘토: 타 부서 임원 혹은 팀장 (윗 직급)
- 활동내용**
버팀목
 - 멘토 선정(팀 내) 후 점심 or 저녁 식사 및 체육 활동, 티타임 등 다양한 활동
 - 버팀목 활동 빙고 합산 참여 가능 (2빙고 달성 시 소정의 선물 지급)
- 버팀목+**
 - 멘토 선정(전사 대상 지정 가능) 후 점심 or 저녁 식사 및 체육 활동, 티타임 등 다양한 활동
 - 버팀목 활동 빙고 참여 불가능
- 기타사항**
 - 버팀목 활동 후 지출결의서 및 멘토링 일지 작성 (멘티 담당)
 - 작성된 멘토링 일지는 지출결의서에 첨부
 - 멘토링 빙고 참여 시, 증빙을 위한 사진 촬영 필수 진행



선행개찰 | 공혁신 구이원 우장우 박성우 김민환 김성범 김혜영 최수진
 선행개찰일 멘토 멘티가 다함께 모여 점심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사 시간 동안 다양한 얘기를 나누며 서로 더 친해질 수 있었는데, 특히 평소 애용하던 메뉴를 소개하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사기획 | 정은철 김민이
 멘토가 좋아하는 식당 방문했습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멘토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고기 스테이크로 식사 했습니다.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의 팀 분위기에 대해 고민한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구이 애드립 | 김재민 김익민
 멘토와 회사 근처에서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회사 업무와 업무의 힘든 점 등을 얘기하며 회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의 초연도 좋을 수 있었습니다. 멘토님과 업무적인 대화 뿐 아니라 업무 외 사생활도 같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사이가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사기획일 | 민찬경 김경아
 평소 멘토가 좋아하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평소 업무의 우선순위가 앞으로 어떤 업무에 대해 편안하게 묻고 답할 수 있는 기회였고, 업무 외에도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 생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공통점과 취향 등을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연구기획파트 | 조소연 김서연
 연구기획파트 다 같이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다양한 얘기를 나누며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내 카페에서의 티타임을 통해 업무 고민과 고민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연구기획이란 직무와 더불어 오일영이라는 회사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며 겪을 다양한 상황을 위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 T야? MBIT T or F TEST



‘너 T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상대방이 공감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을 때 사용하는 밈인데요, MBTI에서 T는 사고형(Thinking)을 의미하는 말로, 이들은 이성, 논리,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판단합니다. 원리와 원칙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는 편입니다.

반대로 F형, 즉 감정형(Feeling)은 개인의 가치, 인간관계,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합니다. 내적 결론에 따른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외를 허용하고 감정과 의미, 도덕성을 중요시합니다.

여러분은 T인가요, F인가요? F와 T는 판단 근거에 따른 차이 때문에 의사소통 중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아래 상황별 질문에 답변해 보며 나와 동료의 차이를 이해해 봅시다.

<p>Q. 약속 당일, 친구가 '나 감기에 걸려서 약속 못 나갈 것 같아'라고 문자를 보낸다면?</p> <p>A. 병원은 갔어? 약속은 다시 잡으면 되니 괜찮아 (T)</p> <p>B. 많이 아파? 너무 속상하겠다. 밥은 먹었어? (F)</p>	<p>Q. 친구가 '나 너무 우울해서 파마했어'라고 문자를 보낸다면?</p> <p>A. 무슨 일 있어? 왜 우울해 (F)</p> <p>B. 무슨 머리했어? 사진 보여줘 (T)</p>	<p>Q. 몸이 아플 때 직장 동료가 '병원 가봐'라고 말한다면 내 속마음은?</p> <p>A. 병원 가가지 (T)</p> <p>B. 섭섭해 (F)</p>
<p>Q. 새로운 팀원을 채용한다면?</p> <p>A. 팀에 잘 화합, 융화되는 사람 (F)</p> <p>B. 업무 역량, 성과가 높은 사람 (T)</p>	<p>Q. '생각해 볼게'에 담긴 의미는?</p> <p>A. 정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T)</p> <p>B. 미안하지만, 거절할게 (F)</p>	

이 찾았다! 오알켄 '공간' 맞히기 퀴즈

다음은 오알켄 사옥 일부분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사진 속 장소를 맞춰보세요!!!
중수까지 적어야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ex) 1번 - n층, 장소 이름



이 Quiz
오알켄
공간 맞히기



O₃Rchestra

2024 | Vol.12

www.orchem.com

ORCHEM[®]